

發 刊 辭

이번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2호는 「법학방법론」 특집호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대내외적으로 다종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고, 이는 법학의 분야에도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현 사회를 조망하면 수많은 법학적인 쟁점과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활기차게 적시에 응전해야 할 과제가 법학에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은 이번 호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현안적 쟁점을 중심으로 특집호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법학방법론을 다룬 이번 특집호는 무엇보다도 종래의 논의에서 다소간 고찰이 미흡했던 법여성학, 노동법학과 세법학 분야의 방법론을 다루고 있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당 특집호는 형법, 행정소송법 그리고 민사소송법과 같은 전통적인 법학 분야의 방법론도 다루고 있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디 당 호를 통하여 법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의 세계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향후 법학특집호의 주제는 「국제적 질서와 국내법」, 「분단 60년의 법적 조명」, 「법, 관습, 전통」, 「인구문제와 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학방법론」이라는 주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법학특집호들이 우리 사회의 쟁점에 대한 집중된 법학적 조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2005년 6월 30일

法學研究所長 崔秉祚 謹書